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뉴스1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0일 오후 6시까지 2024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학년도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연 570만원(전년 대비 50만원 인상), 4~6구간은 연 420만원(전년 대비 30만원 인상), 7~8구간은 연 3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앱(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신청 기간 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한국장학재단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